

[교육]

전남 도교육청 ICT 우수 교원 MS社서 사이버 학습 등 연수



전남도교육청 ICT 연수단이 MS사에서 Live@edu에 대해 강의를 받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와 크게 수준 차이를 느끼지 않았지만 교육 ICT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전된 아이디어를 경험,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미국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이하 MS 사)에서 열린 2007년도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활용 우수 교원 연수에 참석했던 22명 교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07년도 ICT활용 우수교원 22명을 선발, 정보화 선진국 탐방 일환으로 교육 ICT 선진기업인 미국 MS사에서 지난달 29~30일 이틀동안 연수를 가졌다. MS사는 연수단에게 최근 개발한 ▲학생 수준에 맞는 콘텐츠(직접 쓰면서 학습하는 콘텐츠) ▲PIL(Partners in Learning·교원 연수과정) ▲Live@edu(한번 로그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합정보 제공)에 대해 강의 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MS사 미치 벤슨 상무는 "IT강국인 한국의 ICT 전문교

사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전통적 방법인 화상에서 교사의 설명을 학생이 듣는 시스템에서 수요자인 학생능력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은 MS사에서 개발, 시범중인 Live@edu(한번 로그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합정보 제공)를 보내 사이버가정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LIVE@edu는 현재 인터넷 상의 e-mail, 홈페이지, 채팅, 게시판운영 등이 모두 따로 돼 있으나 한번 접속을 통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시애틀 =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스쿨 입학에 위해 꼭 치러야 할 LEET 본시험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LEET 예비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6일, 서울 신당동 한양공고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법조인, 꼼꼼한 사고력 키워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학적성시험 준비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발표됐다.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원하는 로스쿨을 정하고,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제1회 LEET는 오는 8월에 있을 예정이다.

(주)중앙유웨이교육이 운영하는 로스쿨 대비 사실기관 서울로스쿨 감산창 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로스쿨 준비요령을 들어본다.

사회적 이슈 정리 습관 꼭 필요
논술 대비 글쓰기 익숙해져야
이달부터 공인영어 시험 준비

와 논리학·수학·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 등의 소재로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와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 논리학의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비 검사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고 경향을 분석해 놓아야 한다. ▲논술=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제시문과 2~4개 서답형 문제가 제시된다. 예법 조인으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장점이 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도움을 준다. 또 관련 이슈의 법적 관점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찬반의 논거들을 변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은 기본이다. ◇시기별 학습법

▲1~2월 기초 준비=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각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입학 자격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사 과정, LEET, 영어 성적 등이 필수적으로 반영되고 사회·봉사활동 경력이나 심층 면접도 주요 전형 자료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

3~4곳을 골라 자격요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 적어도 2월부터는 공인영어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LEET에 집중할 수 있다.

▲3~4월 집중 학습=본격적으로 LEET 준비를 시작할 때다. LEET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학원 수강이나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사회·봉사활동 경력도 체크해야 한다. 전담대의 경우 5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는 등 대부분 대학에서 사회·봉사활동 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갑작스런 뺨박스 경력 보다는 평소 관심을 갖던 분야의 활동이 바람직하다.

▲5~6월 실전 학습=5월부터는 모의고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총정리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취약점을 파악할 시기다. LEET까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는 등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7~8월 파이널 학습=무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도 힘쓸 시기다. 긴장과 피로도 정신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을 취하고 차분히 계획을 밀고나가야 한다. 7월부터는 최소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실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수의 LEET 영역별 문제와 같은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풀어보는 것이다. 지속적인 문제 풀이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도움=서울로스쿨>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다리高 제 2도약 동문들 나섰다

이음성 전 건교부 장관 등 힘 합쳐
기금 등 매년 1억2,000만원 지원

합평의 명문으로 이름을 날리던 학다리교(교장 서광수)가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1945년 개교한 학다리교는 1970~80년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던 명문이었지만 도시집중화의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음성 전 건교부 장관, 강은태 전 행사부장관 등 동문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동문들은 우선 기금을 마련해 후배들의 성적 올리기 나섰다. 서울대 2명, 카이스트 1명, 연세대 3명 등 올해

대입 성적이 그 효과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140명의 졸업생 중 직업 학교를 선택한 5명을 제외한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CEO형 교장으로 지난해 3월 부임한 서광수 교장은 "동문회에서 학력 증진비 명목으로 매년 1억2천만원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이 교장에게 전적으로 학교 운영을 맡겨 교사들까지 똘똘 뭉치는 등 사기가 높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광주시 부교육감과 전남대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넘

게 교육공무원을 지냈다.

학교 측은 전남대 교수를 초빙해 2~3학년 대상을로 격주, 1회 3시간씩 논술 강좌를 마련하는 가 하면,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지역 유명 학원 강사로부터 국어·영어·수학 특강을 준비했다. 지난해 입시에서 17년만에 서울대 합격생을 내더니 올해는 비약적인 입시 성적을 내놓았다. 서 교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학부모와 동문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동강대, 글로벌 실무형 인재 양성 '호응'

비즈니스·관광레저 계열 중·日서 현지 교육
전액 국비 혜택에 취업도 가능... 학생들 관심

'전공에 도움되는 외국어 능력과 문화를 현지에서 배운다.' 동강대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단(단장 김한수 교수)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 중인 '지역전략산업(디자인·관광·물류) 중국 및 아시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BL기반 국제실무인력양성 사업'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중·일비즈니스계열, 관광레저과, 사회체육계열, 호텔외식관광과,

법률경찰경호계열, 전산세무회계과, 노인복지과, 토지정보관리과, 사회복지행정과, 유아교육과 등 808명. 이들은 사업을 통해 장학금과 유학 혜택 등을 받고 있다.

외국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는 현지학기제, 방학을 이용한 6주 어학연수, 현지 팀 프로젝트,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해 194명·중·일비즈니스계열, 관광레저과, 사회체육계열, 호텔외식관광과, 로 진행된다. 중국비즈니스 전공의 학생들은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비즈니스 전공과에서 공부하거나, 일본비즈니스 전공 학생들은 오사카 국제대학 경영정보학과 편입 또는 IT 관련 현지 취업 등을 하는 식이다. 동강대학 양선관 교수는 "모든 혜택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일정한 성적이 외국어 실력 향상이 하기 때문에 향학열에 불타는 것은 물론,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 Gwangju.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금보부동산건설팀',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section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